

전통 취락경관의 특색: 자연환경을 반영한 제주와 피코 돌문화경관을 중심으로*

김지수** · 성효현*** · 이해은**** · 정광중***** ·
강성기***** · 정주연***** · 송은영*****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Settlement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Stone Cultural Landscapes Reflecting Natural Environment in Jeju Island and Pico Island*

Jisoo Kim** · Hyo Hyun Sung*** · Hae Un Rii**** · Kwang-Joong Jeong***** ·
Seong-gi Kang***** · Ju Yeon Jeong***** · Eunyeong Song*****

요약: 본 연구는 화산섬으로 이뤄진 유사한 자연환경 하에서 돌문화경관을 이룬 제주도와 피코섬이 상이한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독특한 취락경관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고 두 지역 간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경관요소별 특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제주도와 피코섬의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그러한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각 섬의 전통 취락경관을 돌문화경관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의 돌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석조 문화유산들이 모두 현무암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재료적 유사성을 지니며 유사한 용도의 문화유산 간 형태적 유사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돌담과 관련하여 두 지역 모두 해풍으로부터의 보호와 사유지 경계 구축을 위해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경관의 특색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질연대에 따른 토양 발달과 관련된 생산활동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배경 및 육지로부터의 접근성과 정착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제주도, 피코섬, 돌문화경관, 자연경관, 취락경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eju Island and Pico Island, which have stone culture landscape under the similar natural environment of volcanic island, formed unique rural settlement landscape in different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elements. We compared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tone cultural landscape elements of each islan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stone cultural heritage that constitutes the stone cultural landscape of both areas had material similarity in that all of them were made of basalt rocks. Morphological similarity between cultural heritage of the two islands for similar uses was also identified. Regarding the stone walls, functional similarity was verified in that the walls in both islands were used to protect crops from sea breeze and to build boundaries of private l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wo landscapes were resulted from the fundamentally different geological ag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il, as well as the uniqu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region, and the difference in accessibility from mainland and the history of settlement.

Key Words: Jeju Island, Pico Island, stone cultural landscape, natural landscape, rural settlement landscape.

* 이 논문은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제주 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코모 스한국위원회, 2017)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교육과 박사수료(Ph. D. Candidate,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 jskim025@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교육과 교수(Prof.,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 hhsung@ewha.ac.kr)

****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좌교수(Chair Prof.,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 rii5112@hanmail.net)

***** 제주대학교 초등사회교육전공 교수(Prof.,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 jeongkj@jejunu.ac.kr)

*****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Researcher, Jeju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darkhorse06@naver.com)

*****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 mimogeoy@naver.com)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Graduate Student, Dep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 sey940505@naver.com)

1. 서론

전통 취락경관은 많은 경우 기후, 지질,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지대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제주도에는 예로부터 화산섬 특유의 검은 현무암 암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 ‘돌문화경관’이라 일컫는 독특한 전통 취락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들의 향토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특히 2015년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 문화경관분과위원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주 돌문화경관의 유산적 가치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제주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주최 탐방프로그램, 축제,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학술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개별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이들 유산이 이루는 문화경관의 차원에서 돌문화경관을 검토한 연구들(강성기, 2010; 2011; 강연실, 2008; 고성보, 2007; 김종석, 1998; 정광중·강성기, 2013; 정광중·김은석, 2008; 최용복·정문섭, 2006)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문화경관을 검토한 선행연구로 브라질리아의 도시경관을 논의한 이해은(2013)의 연구와 마카오의 역사·문화적 도시경관을 다룬 정주연·이해은(2014)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 문화유산에 대해 경관 차원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로는 남한산성의 군사·통치·민속 경관 요소를 추출하고 특징을 밝힌 최재현·이해은(2013)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해외의 유사한 유산과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가치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도 고유의 돌담인 ‘발담’이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이어 2014년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와 같이 돌과 함께 형성된 독특한 제주의 문화경관이 국내외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유사한 문화경관을 지닌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인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제주도와 유사한 돌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외 유산지역으로 북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령 피코섬이 있다. 이곳 역시 화산섬으로 섬 중앙부에 위치한 피코산이 제주의 한라산과 대비되며 중위도 대양 가운데에서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자연환경이

제주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곳은 현무암 암괴를 활용한 돌담, 가옥, 성당, 우물 등 여러 돌 구조물과 시설이 이루는 독특한 취락경관을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여 ‘문화경관’¹⁾으로서 2004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유사한 두 지역이 상이한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독특한 취락경관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고 두 지역 간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돌문화 경관요소별 특색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돌문화경관이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지답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제주도와 피코섬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의 조사와 검토가 주를 이루었다. 현지답사의 경우 제주도는 2017년 6월 3일, 2017년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피코섬은 2017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답사 시 피코섬의 자연공원 유산관리 전문가의 설명과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문헌연구로부터 얻기 힘든 피코 돌문화경관에 관한 구술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지역인 제주도와 피코섬의 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북위 33°06'36", 동경 126°08'38"에서 북위 34°00', 동경 126°58'22"에 걸친 유라시아대륙 동안 환태평양조산대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총 면적 1,847km²의 순상화산섬으로 63개의 부속 도서를 지닌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약 41km의 타원형 형태를 지니며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져있다. 섬 중앙의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사면은 3~5°의 완만한 경사를, 남쪽과 북쪽 사면은 5° 이상의 상대적으로 급한 경사를 보인다.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1,950m로 나타나며 한반도와 제주도 간 최단거리는 약 85km에 달한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윤선 외, 2014).

피코섬은 북위 38°22'55"서경 28°01'55"에서 북위 38°33'40", 서경 28°32'34"까지 북대서양 중앙해령에서 나온 단열대(fracture zone)에 위치한 아조레스 제도의 중앙에 자리잡은 총 면적 447km²의 성층화산섬으로 31개의 부속 도서를 지닌다(Técnico, 2014)(그림 1). 동서로 약 46km, 남북으로 약 16km의 타원형 형태를 지니며 장축이 북서서-남동동 방향으로 기울어져있다. 섬의 서쪽 중앙부에 위치한 피코산은 아조레스 제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해발고도 2,351m를 나타낸다.



출처: Google Earth(<http://earth.google.com>)

그림 1. 피코섬의 위치

피코섬에서 유럽대륙 서안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500 km, 북미대륙 동안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3,900km에 달한다.

2. 제주도와 피코섬의 자연환경 비교 분석

제주도와 피코섬의 기후는 공통적으로 연중 기온이 온난한 아열대 또는 온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표 1). 제주도의 경우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아 연중 기온이 온난하고 변동이 적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한다. 또한 중위도 편서풍대의 대륙 동안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여름철에는 북태평양에서 발원한 해양성 아열대고기압의 영향이 우세하고 겨울철에는 대륙성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몬순기후를 나타낸다(국토지리정보원, 2013).²⁾

한편 피코섬의 기후는 아조레스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온대 해양성 기후로, 연중 온난한 기온과 일정한 강우량, 높은 상대습도, 흐린 하늘 및 잦은 바람이 특징적이다(Interpretativa da Paisagem da Cultura da Vinha do Pico, 2017; Parque Natural do Pico, 2017). 북대서양 동부 북위 30~35° 부근에 위치한 아조레스고기압과 해양의 영향으로 여름은 습윤하고 서늘하며, 겨울에는 북

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저기압과 아조레스고기압 사이에 전선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가 나타난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한국지구과학회, 2009).³⁾

화산섬의 형성시기와 형성조건의 측면에서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및 필리핀판의 수렴형 경계인 섭입대 부근 열점(hot spot)에서 형성된 반면, 피코섬은 약 30만 년 전 발산대인 대서양 중앙해령의 해저열점에서 발생한 시간적·발생원인적 차이를 지닌다. 또한 지질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현무암질 용암, 조면암질 용암, 조면질안산암류 등 비교적 다양한 지질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 피코섬에서는 현무암질 용암만 발견된다(그림 2, 3). 제주도의 경우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열점에서의 반복적인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Brenna *et al*, 2012), 오늘날 바다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만 대륙붕 위에서 이루어진 대륙지각 내 화산활동(continental intraplate volcanism)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이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도는 크게 5단계의 시기를 거쳐 형성되었다. 우선 고제주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층 위에 플라이오세 후기부터 플라이스토세 전기 동안 제주도 지역에 분지가 형성되고 주기적인 빙하성 해수면 변동의 해침작용으로 천해성 퇴적층인

표 1. 제주도와 피코섬의 자연환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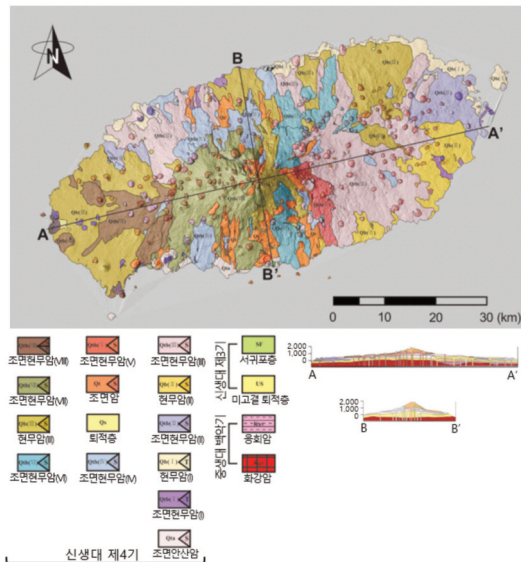
	제주도	피코섬
기후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아열대/온대 해양성 기후	아조레스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온대 해양성 기후
섬의 형성시기와 형성조건	약 180만 년 전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및 필리핀판의 수렴형 경계인 섭입대 부근 열점에서 형성	약 30만 년 전 발산대인 대서양 중앙해령의 해저 열점에서 발생
지질	현무암질 용암, 조면암질 용암, 조면질안산암류 등	현무암질 용암
토양	흑색 화산회토, 농암갈색 화산회토, 암갈색 비화산회토, 갈색 삼림토	안디솔 토양과 화산쇄설층

서귀포층이 생성되었다. 그 후 용기활동으로 제주도 일대가 육화되었고 용암 분출로 표선리현무암군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화산활동이 끝난 후 하성환경 하에서 탐라층이 퇴적되었다(윤선 등, 2014). 약 41만~27만 년 전에서 16만 년 전 섬의 중심부에서 높은 점성도의 용암이 대량 분출되면서 한라산이 형성되었고, 16만 년 전 이후 방대한 양의 현무암 용암과 화산쇄설물이 360개가 넘는 화구에서 분출하면서 섬의 규모와 부피가 커지게 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약 2만5천~2만 년 전 시점에 한라산 정상에서 다시 분화활동이 일어나 백록담 분화구가 형성되고 오늘날의 1,950m 높이의 한라산이 완성되었다. 그 후 약 1만 년 전 홀로세로 접어들면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제주도는 섬이 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대륙지각 위에서 생성된 제주도와는 달리 피코섬의 경우 해양지각 위 단층선을 따라 형성되었다.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사이 아조레스 마이크로판 위에 위치한 아조레스 제도는 연속적인 구조운동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대서양 중앙해령 상 9개의 열점에 해당되며(김창환, 2013; Gaudru, 2010), 피코는 이들 중 약 30만 년 전 가장 마지막으로 생성되었다(Nunes *et al.*, 2006). 피코섬의 형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약 30만 년 전 오늘날 피코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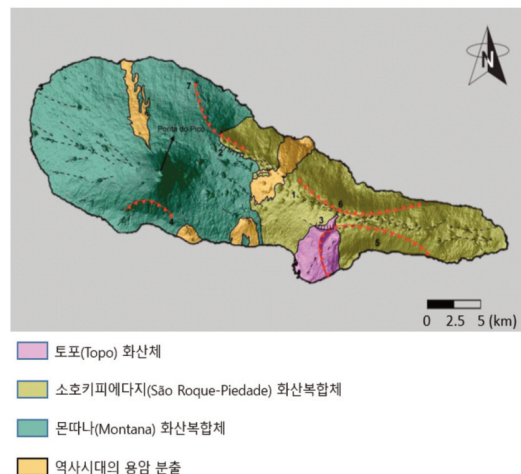
동부지역에 맨 처음 토포(Topo) 화산체가 생성되었다. 23만 년 전 토포 화산체 위로 분화가 대거 일어나면서 수많은 화구구가 생성된 상호퀴피에다즈(Sao Roque-Piedade) 화산복합체를 이루었다. 23만 년 전 이후 피코섬의 서부지역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여 몬타나(Montana) 화산복합체가 형성되면서 피코산이 만들어졌다. 이후 역사시대에 들어서 1562년에서 1720년 사이 섬 곳곳에서 수회에 걸쳐 화산 분화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섬이 완성되었다(Cruz and Silva, 2000; Quartau *et al.*, 2015).

인간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토양을 살펴볼 경우 제주도의 토양은 크게 흑색 화산회토, 농암갈색 화산회토, 암갈색 비화산회토, 갈색 삼림토 등 4개 유형이 나타나는 반면, 피코섬에서는 흑색 화산회토의 일종인 안디술 토양과 화산쇄설층만 나타난다. 제주도 토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대 60만 년 전에서 최소 2만5천 년 전 분출된 현무암 기원의 화산회를 모재로 한 화산회토는 매우 높은 유기물 함량과 강산성을 특징으로 하며 중간에서 낮은 수준의 자연비옥도를 보여 밭, 과수원, 초지, 임지로 활용되고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유순호·송관철, 1991). 비화산회토는 120만~70만 년 전 분출된 현무암으로부터 유래한 충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유기물 함량이 적으며 약산성을 띠지만 자연 비옥도가 높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국토지리



출처: 고보균·윤성호(2016).

그림 2. 제주도의 지질 분포



출처: Quartau(2015)을 번역함.

그림 3. 피코섬의 지질 분포

정보원, 2013; 유순호·송관철, 1991).

피코섬의 경우 지질연대가 짧아 토양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Freitas and Pacheco, 2010). 피코를 비롯한 아조레스 제도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주로 습윤한 기후에서 화산회가 풍화되면서 생성된 안디솔 토양과 화산쇄설층으로 이루어진다(Connor *et al.*, 2012; Madeira *et al.*, 2007). 피코섬 대부분의 지역이 초지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토양 생산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특히 섬의 서부지역은 아조레스 제도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형성되어 토양의 발달이 더욱 미약하고 암괴와 자갈이 많다(Connor *et al.*, 2012).

3. 피코섬의 취락경관 개관

제주와 피코 돌문화경관의 특색을 비교하기에 앞서 피코섬의 정착 역사와 돌문화경관이 형성된 문화·역사적 맥락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피코는 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조레스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투갈령 섬이다. 2015년 기준 피코섬의 인구는 약 15,000명으로 약 17개의 마을이 있으며, 섬의 중심지는 서부에 위치한 마달레나(Madalena)이다(Cappello *et al.*, 2015). 피코섬에는 15세기 중반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15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하천이 있고 평탄한 해안지

대를 지닌 섬의 동부지역에서 먼저 거주가 시작되었고, 토양이 적고 돌이 많은 서부지역에서는 18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Técnico, 2014). 인간이 정착한 이래 피코섬의 주요 산업은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었으나 19세기 중반 흰가루병(Powdery Mildew)과 포도나무뿌리진디(Phylloxera)가 창궐하면서 포도밭이 대거 황폐화되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그러던 중 18세기 말 아조레스 제도를 중심으로 포경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1970년대까지 포경을 비롯한 어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가 20세기 후반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육용소 중심의 방목 축산업이 주를 이룬다. 2000년대 후반부터 포도 재배와 이를 이용한 와인 생산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피코의 와인 가공은 주로 와인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생산된 매년 40만 리터 가량의 와인 중 80%는 내수용, 20%는 수출용으로 나간다.

피코섬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문경관은 포도밭 돌담 관련 문화경관이다(그림 4). 15세기 인간의 거주가 시작된 이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 세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 포도밭 경작 결과 형성된 독특하고 심미적인 경관이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낸 농업인들의 삶의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피코섬의 포도밭 문화경관(Paisagem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4. 피코섬의 포도밭과 인근 취락경관

da Cultura da Vinha da Ilha do Pico)>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특히 포도밭 돌담 유적은 회반죽 없이 쌓아올려 만든 검은색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구획들이 수천 개의 사각형 모양을 이루며 연결된 벽 구조물로 피코산 아래 들판에서 해안선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기묘한 무늬를 이루는 경관으로 나타난다. 작은 구획을 나눠 벽을 세운 이유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염분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벽 자체로 포도나무의 지지대가 된다. 섬의 도로망은 포도밭이 인접한 해안을 따라 포도주 저장고와 작은 항구로 연결되도록 형성되었다(Técnico, 2014).

피코섬에서 포도 재배의 도입은 15세기 포르투갈의 초기 식민지들 다수에서 행해진 광대한 와인 양조장 개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ICOMOS, 2004). 와인 제조법은 15세기 무렵 천주교수도회인 예수회에서 도입되었고 16세기에 프란치스코수도회와 가르멜수도회가 개선된 방법을 소개하면서 와인 생산이 더욱 널리 퍼졌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수출이 늘어 와인 생산량이 극에 달했다(피코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이 섬에서 15세기부터 포도 재배가 이루어진 흔적은 돌담이 둘러진 들판과 가옥, 19세기 초 장원 영주의 저택, 와인 저장고, 성당, 항구 등지에서 확인된다. 특히 세계유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 취락경관이 이례적으로 잘 보존되어있으며 19세기에 풍차가 세워진 것을 마지막으로 경관이 거의 변경되지 않은 채 온전히 남아있다.

4. 자연환경을 반영한 피코와 제주 돌문화경관의 비교

1) 생계활동과 관련한 돌문화경관

제주와 피코에서 나타나는 주민의 생계활동과 관련한 돌문화경관을 해안지대, 중산간지대와 해안지대 사이에 있는 저지대, 중산간지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6월.

그림 5. 제주도의 불턱담

(1) 해안지대의 돌문화경관

두 섬의 해안지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생계활동 관련 돌문화경관 요소로 휴식처, 우물, 해안 만입부의 돌담이 있다.

우선 해안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생계활동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임시장소로 활용된 돌문화유산으로 제주의 ‘불턱담’과 피코의 ‘아브리고(Abrigo)’⁴⁾가 있다. 제주의 불턱담은 예로부터 해녀들이 해안에서 물질을 하면서 탈의하거나 휴식을 취하던 장소를 감싼 돌담이다(그림 5). 돌담의 형태는 원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나타나며 도로변에서 내부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낸 좁은 입구를 지닌다. 담의 구조는 대부분 2~3겹으로 막쌓기를 한 겹담으로 나타나며, 입구 주변만 외담으로 된 경우도 있다. 규모는 짧은 면이 6.2~9.9m, 긴 면이 10.8~13.5m 정도이며, 높이는 대략 1.2~1.8m로 나타난다. 해녀들은 불턱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람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불턱담의 경우 중앙에 화로를 설치하여 몸을 녹이는 곳으로 활용하였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피코의 아브리고 역시 주민들이 포도밭 경작활동 중 쉼터로 활용한 임시장소로, 날씨에 따라 뜨거운 햇볕이나 비를 피해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도밭 경작시 필요한 농기구를 임시보관하기도 하였다(그림 6). 쉼터의 규모는 대략 가로와 세로 및 높이가 1.5~2m 안쪽으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주의 불턱담에 비해 좁고 낮은 직사각형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제주의 불턱담과는 달리 항상 지붕이 있는 구조로 나타나며, 그 형태는 주로 경사진 사선형을 띤다.

우물과 관련하여 제주의 용천과 피코의 조수우물(Poços de Maré)은 일상생활과 작물 경작, 목축업 등의 생계활동을 위해 거주민들이 물을 구득하던 주요 수원으로, 두 지역 모두 주로 해안가에서 나타나며 이곳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 돌로 쌓은 우물이 공통적으로 나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6. 피코섬의 아브리고

타난다. 제주도의 용전은 빗물이 지면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서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지표면과 교차하는 지층이나 암석의 균열을 따라 지표로 솟아난 샘 주변을 돌로 쌓아 우물로 만든 것이다(그림 7). 2014년 기준으로 총 1,023개소가 확인되었고 표고 200m 이하 해안지대에 전체의 92%가 분포하며 특히 표고 5m 이하의 해안선 부근에만 전체 용전의 57.1%가 위치하고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3;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도에서는 용전이 취락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90%의 취락이 갈수기에도 생활용수를 얻기 쉬운 용천수가 위치한 해안 저지대에 입지해 있다. 1980년대 이후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현재는 과반수의 용전이 미이용 중이거나 멸실되었지만, 여전히 37%에 달하는 383개소의 용전은 생활용, 상수원,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3).

피코의 조수우물은 비중이 가벼운 민물이 상대적으로 염분이 많아 무거운 바닷물 위에 뜨는 수리화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지표와의 거리가 짧은 지점에 구멍을 뚫어 암반 내 염수 위에 뜬 담수를 퍼내기 위해 만든 우물이다(Interpretativa da Paisagem da Cultura da Vinha do Pico, 2017)(그림 8). 섬 내에 총 35개의 조수우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포도밭 세계유산이 위치한 서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Cruz and Silva, 2000). 우물이 서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샘이 있는 동부지역과는 달리 서부지역에는 샘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Cruz and Andrade, 2017; Cruz and Silva,

2000). 따라서 조수우물이 존재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포도 경작과 와인 양조를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Interpretativa da Paisagem da Cultura da Vinha do Pico, 2017). 1970년대에 들어서 섬에 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와 피코의 해안지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또 다른 돌문화경관 요소로서 해안의 소규모 만입부에 쌓은 돌담이 있다. 제주를 이를 ‘원담(갯담)’이라 일컫는데, 이는 해안가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어업용 돌담이다(그림 9). 이 돌담은 작은 만입부에 크고 작은 현무암 돌을 쌓아올리거나 때로는 노출된 기반암만을 활용하여 지어졌다. 원담의 모양은 타원형, 직선형, 그리고 드물게 사다리꼴로 나타난다. 외담 또는 2~3겹의 겹담 구조를 지니며, 원담 안쪽으로는 바닷면과 직각이고 바깥쪽은 비스듬히 경사져있는 경우가 많고, 바닥은 대부분 모래와 해초로 이루어져 있다. 원담의 규모는 대부분 길이 30~60m, 폭 1~2m, 높이 0.8~1.5m로 나타난다. 간조 시 원담의 면적은 소형의 원담인 경우 330m² 이상, 중형인 경우 약 1,000m², 대형인 경우 약 3,300m² 정도로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마을주민들이 일부 원담에서 종종 어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피코의 자연풀(Piscinas Naturais)은 제주도 원담과 마찬가지로 만입된 소규모의 해안에 위치한다(그림 10). 모양은 대략 0.5~1m 내외의 현무암 거력을 주로 타원형의 형태로 일렬로 쌓아 만들어졌다. 피코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을 수영과 일광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9월
그림 7. 제주도의 용천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8. 피코섬의 조수우물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6월.
그림 9. 제주도의 원담(갯담)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10. 피코섬의 자연풀(Piscinas Naturais)

한다. 낚시도 이루어지지만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위락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조 때 들어온 물고기를 가두어놓고 간조 때 이를 잡아 시장에 팔거나 가정에서 식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계의 목적을 지닌 제주의 원담과는 달리 이곳의 돌담은 사람들이 휴양활동 중에 깊은 바다로 떠밀려가지 않게 막고 파도를 방어하기 위한 보호책으로서의 목적을 지닌다.

(2) 저지대의 돌문화경관

제주와 피코에서는 공통적으로 섬의 저지대에서 농경활동을 위해 축조된 돌담이 나타난다. 제주도의 경우 밭 주변에 쌓은 담을 ‘밭담’이라 일컫는다. 밭담은 해풍과 토양유실로 인한 작물 피해를 막고 경지 간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강성기, 2011; 정승훈, 2014) (그림 11). 담은 크고 작은 현무암 돌을 쌓아올린 구조를 지니며 경지를 따라 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높이는 0.5~2m 사이로 나타내 해안에 가까울수록 돌담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강성기·정광중, 2016). 현재까지 밭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잘 보존되어 나타나며, 밭담이 있는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마늘, 양파, 무, 당근 등으로 다양하다.

피코에서는 주로 포도나무와 일부 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곳에 축조한 돌담을 ‘쿠하이스(Currais)’라 일컫는다(그림 12). 쿠하이스는 제주도의 밭담과 유사하게 강한 해풍과 해풍에 포함된 염분으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경지를 구획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Museu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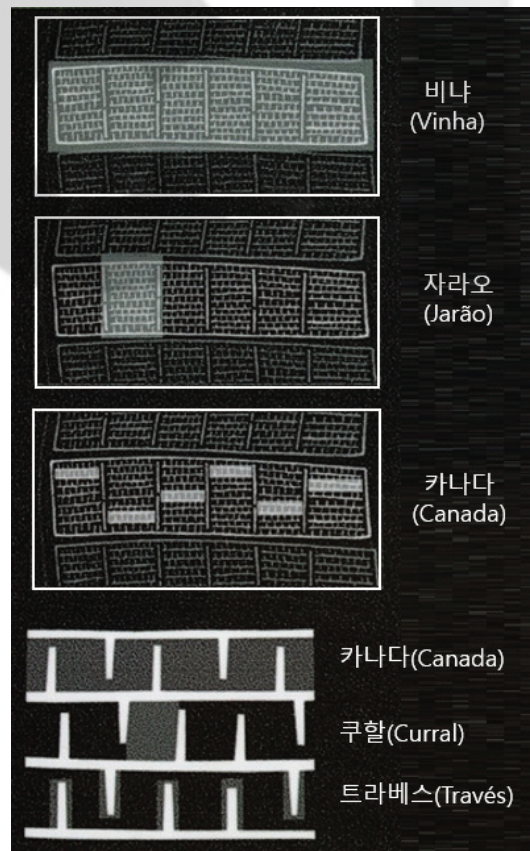
그림 11. 제주도의 밭담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12. 피코섬의 쿠하이스

do Pico Pólo do Museu do Vinho, 2017). 쿠하이스의 모양은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사각형의 돌담과 브랜드용 무화과를 재배하기 위한 반원형의 돌담으로 나뉜다. 피코 섬 포도밭의 돌담 구획은 규모에 따라 트라베스(Través), 쿠할(Curral), 캐나다(Canada), 자라오(Jarão), 비냐(Vinha)로 나뉜다(그림 13). 트라베스는 각각의 국소 구획을 분리한 작고 낮은 담을 말하며 쿠할은 트라베스 사이에 구획된 1~6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말한다. 카나다는 여러 개의 쿠할이 나열된 열을 일컬으며, 캐나다 간에는 80~90cm 높이의 돌담으로 나뉜다. 자라오는 캐나다의 모음으로, 자라오 간에는 1.2m 높이의 더 높은 돌담으로 구획된다. 여러 개의 자라오가 묶여 비냐(Vinha)를 구성하며, 비냐 간에는 약 2m의 이중 담이 둘러진다(Museu do Pico Pólo do Museu do Vinho, 2017). 피코 사람들은 좁은 면적으로 구획된 현무암 돌담이 일으키는



출처: Museu do Pico Pólo do Museu do Vinho (2017).

그림 13. 쿠하이스의 구획 및 규모별 명칭

미기후적 영향을 포도나무의 재배에 활용하였다. 현무암의 어두운 색은 열 흡수를 높여 좁은 공간 내에 기온을 더 높이는 미기후적 영향을 유발하여 포도의 성숙을 돕고 포도열매가 높은 당도를 지니게 한다. 그 결과 생산된 당도가 매우 높은 포도로 양조하면 알코올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리큐어와인이 생산된다. 일부 지역의 쿠하이스는 방치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섬 전반적으로 돌담의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3) 중산간지대의 돌문화경관

제주와 피코에서는 공통적으로 말과 소의 방목을 위해 중산간지대 초지에 쌓은 돌담 경관이 나타난다. 제주도의 경우 이를 ‘잣성’이라 일컫는다(그림 14). 잣성은 15세기 조선왕조가 건국 초부터 안정적인 군마 공급을 위해 국영목마장을 운영하고자 한라산의 중산간지대 상부와 하부 경계에 축조한 담이다(강만익, 2009). 한라산 중산간지대는 목장을 만들기에 유리한 환경사 지형과 우마의 먹이인 풀이 자라는 초지가 발달하여 고려시대 이전부터 목축의 적지가 되었다(강만익, 2009; 김일우, 2005). 잣성은 위치와 지어진 시기에 따라 1430년대 조선 초에 해발고도 150~250m 일대에 축조된 하잣성, 18세기 후반 해발고도 450~600m에 지어진 상잣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해발 350~400m 일대에 축조된 중잣성, 목장과 목장을 남북 방향으로 구획하는 간장으로 구분된다.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6월.

그림 14. 제주도의 잣성

피코의 경우 피코산의 중산간지대 초지에 선형의 돌담이 일정한 패턴 없이 사각형 또는 다각형으로 나타난다(그림 15). 목장에서 기르는 가축이 제주도의 경우 말이 주었던 반면, 피코에서는 주로 육용소가 많으며 때로 말도 함께 사육한다. 이 돌담은 개인별 목장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2) 생활공간과 관련한 돌문화경관

생활공간과 관련한 돌문화경관으로 제주의 ‘집담, 올렛담’과 피코의 마을 내 돌담을 꼽을 수 있다. 제주도의 집담(올렛담)은 민가에서 가옥의 경계 상에 쌓은 돌담이고, 올렛담은 마을 내 길에서 민가까지 이어진 골목을 뜻하는 ‘올레’ 양쪽에 선형으로 쌓아올린 돌담이다(그림 16). 집담과 올렛담의 높이는 낮은 구간에서 80~110cm 내외, 높은 구간에서 140~230cm 내외로 나타난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이들은 거친 해풍과 염분을 막고자 해안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높게 나타나고, 해안에서 멀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자연에 적응한 인간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피코에서도 마을 내 돌담을 비롯하여 생활공간에 돌을 다양하게 활용한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17). 이들은 섬에서 풍부하게 나타나는 현무암 돌을 이용하여 민가의 돌레를 따라 돌담을 쌓기도 하고, 가옥과 창고, 개인 와인 양조장 등 건물을 짓는 주재료뿐만 아니라 창틀, 문틀과 같은 장식적인 부재료로도 적극 활용하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15. 피코섬의 중산간 돌담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6월.

그림 16. 제주도의 집담과 올렛담



출처: 연구진 촬영, 2017년 8월.

그림 17. 피코섬의 마을 내 돌담

였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섬 전반에서 검은 현무암을 소재로 한 가옥과 건물이 흔하게 발견되며 전반적인 상태도 좋은 편이다.

3) 그 외 돌문화경관

이상에서 논한 돌문화경관 요소들 외에도 제주와 피코가 각자 지닌 고유한 유형의 돌문화경관 요소들이 존재한다.

제주도의 경우 생계활동 수단으로 활용된 기타 유산으로 일상생활용 그릇과 용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 돌가마와 해안의 평평한 암반을 이용하여 염전활동이 이뤄졌던 돌염전이 있다.

종교·신앙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산으로는 지석묘, 불교 석탑, 방사탑, 돌미륵, 돌하르방, 신당 돌담, 산담이 있다. 지석묘는 선사시대인들이 거대한 암괴를 이용해 만든 기념물로 제주도에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사이에 축조된 지석묘 120여기가 있다. 불교 석탑으로는 고려시대에 현무암 재질로 건립된 불탑사 5층석탑이 있으며,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한 풍수 비보로 세운 방사탑이 마을이나 농경지와 같은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드나드는 연안과 해안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돌미륵은 불교에서 유래된 미륵신앙에 기반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존재인 미륵을 현무암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해안선에서 가까운 옛 제주성의 동, 서쪽 언덕에 위치하는 독특한 입지적 특징을 지닌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돌하르방은 조선시대 제주의 성문 입구에 세웠던 석상으로 오늘날 제주도에는 총 45기가 남아있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신당 돌담은 민속신앙에서 신을 모셔놓은 장소인 신당의 경계 및 내부에 돌을 쌓아올려 만든 담이며, 산담은 방목 중인 우마가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무덤 봉분 주위에 돌을 쌓아올려 경계를 지은 담이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방어 및 통신수단으로 활용된 돌문화유산으로 연대와 도대불, 환해장성, 읍성 및 진성 성담, 4.3 성담이 있다. 연대는 해안가의 높은 언덕에 축조된 조선시대의 군사통신시설이며 도대불은 일제강점기에 포구에 축조되었던 등대이다. 환해장성은 고려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 전기에 걸쳐 제주도의 해안선을 따라 축조된 방어용 돌담이며, 읍성 성담은 15세기 초반 지방 행정 중심지인 읍성 외곽에, 진성 성담은 16세기 후반 군사

적 요충지인 진성 외곽에 축조된 방어용 성곽이다. 4.3 성담은 1940~50년대 중반 제주 4.3사건 때 무장대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주민들과 무장대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축성된 담이다. 이들 중 많은 경우는 현재 방치되거나 소실된 것이 많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피코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돌문화경관으로 ‘홀라피 파스(Rola Pipas)’라 불리는 일종의 작은 항구 유적과 ‘힐레이레스(Rilheires)’라는 수레자국이 남아있다. 홀라피 파스는 피코섬에서 생산한 와인을 피코의 서쪽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섬인 파이알(Faial) 섬의 호르타(Horta) 향으로 운반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작은 항구이다(Técnico, 2014). 섬 내 3곳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서쪽 파이알(Faial) 섬에 면한 서쪽 지역에 위치하며, 파호이호이 현무암 용암류가 거의 평평하게 굳어진 해안 파식대에 위치한다. 힐레이레스는 과거에 소가 끌던 와인술통 수레의 바퀴 자국으로 소항구 주변에 남아있다. 평평한 현무암 용암류 암반 위에 수레바퀴 자국이 매우 깊게 패여 있어 과거에 피코섬의 와인 양조산업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Técnico, 201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무암이 지표의 대부분을 피복한 화산섬이라는 유사한 지질 및 지형환경을 지닌 제주도와 피코섬의 취락에서 나타나는 특색을 돌문화경관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지답사를 토대로 피코와 제주의 자연환경을 비교하고 이것이 반영된 각 지역의 돌문화경관 요소를 공통된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피코와 제주의 돌문화경관 간 각각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제주도와 피코섬의 돌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석조 문화유산들이 모두 검은색의 현무암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재료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두 섬의 형성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섬 전반에서 나타나는 화산암으로서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전통 건축물과 기념물 역시 현무암을 이용한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돌문화경관을 이루는 석조 유산

간 형태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가령 제주의 발담과 피코의 포도밭 돌담, 제주의 집담과 피코의 마을 내 돌담은 모두 돌을 일렬로 적재하여 쌓은 담장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제주의 용천은 용천수가 해수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용천수 돌레를 따라 소규모의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벽을 쌓은 형태를 지니며, 피코의 조수우물은 암반층에서 흘러나와 해수층 위에 부유한 지하수층을 지상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고이게 하여 지상으로 퍼내기 위해 역시 원형 혹은 사각형의 벽을 쌓은 형태로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 제주의 원담과 피코의 자연풀은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 해안의 소규모 만입부에 일종의 호소를 만들기 위해 원호 혹은 직선의 선상으로 돌을 쌓은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 공통점은 특히 돌담과 관련하여 두 지역의 돌담이 모두 해풍으로부터의 보호와 사유지 경계 구축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제주와 피코 모두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개방수역 상 위치한 섬으로 해풍에 의한 농작물의 염분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각종 물적 피해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현무암 암괴로 담을 쌓아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와 피코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돌담이 농작지의 경계, 방목지의 경계, 가옥의 경계를 시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돌문화유산의 기능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와 피코섬의 돌문화경관 간 차이점은 크게 상이한 지질연대와 토양의 발달 차이, 문화·역사적 배경, 그리고 섬의 접근성에 따른 정착역사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두 섬의 돌문화경관이 지닌 첫 번째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두 섬의 상이한 지질연대에 따른 토양의 발달 차이에서 비롯된다. 피코섬보다 제주도에서 토양의 발달이 더 이루어졌는데 이는 제주도가 피코섬에 비해 생성 연대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에는 낮은 투수성을 지닌 화산암층 하부에 수분을 지닌 대수층이 존재한다. 그 결과 담수가 나오는 샘인 용천이 존재하여 오래 전부터 밭의 경작이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돌뿐만 아니라 점토와 짚으로 만들어진 전통 건축물이 존재한다. 반면 피코섬은 지질 연대가 짧아 토양의 발달이 제주도만큼 진전되지 않았으며 아직 풍화되지 않은 현무암 암괴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경작활동이 섬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전통 건축물이 오직 돌로 이루어져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각 섬에서 특정 작물 및 가축을 기르게 된 연원에서 나타난다. 피코섬의 경우 주요 농작물로 포도나무가 선택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에는 종교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15세기 중반 섬이 처음 발견된 이래 15세기 후반 정착 초기부터 천주교 수도회인 예수회가 이곳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미사집전 시 필요한 미사주로서 와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와인 양조를 위한 포도나무 재배가 시작되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농작물 경작에 있어서는 피코섬과 같은 특별한 배경이 없으나 말 사육에 관해서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에서 말 사육은 고려 말 삼별초의 난 끝에 제주도가 원의 직할령이 된 1273년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어 이루어졌다(강만익, 2009). 원은 제주도 동서부 일대에 국립 목마장을 마련하고 군마 공급을 위한 경영을 직접 이어나갔으며 이는 14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강만익, 2009). 이어 조선왕조에 들어서 건국 초기부터 한라산 중산간 지대 전역으로 국립 목마장을 넓혀 설치하고 갖성을 쌓아 조정에서 제주도 국영 목마장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였다(강만익, 2009).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을 위한 돌담의 구조에 있어 피코섬의 경우 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층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제주도의 갖성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지닌다.

마지막 차이점은 섬의 접근성 차이와 정착역사에 따른 돌문화경관 보존상태의 차이이다. 제주와 피코의 돌문화경관은 서로 다른 보존 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두 섬의 육지로부터의 접근성과 인류 정착 역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피코섬의 경우 육지로부터의 최단거리가 1,500km에 달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고 고립성이 매우 높다. 또한 15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시작된 제한된 역사시기 동안 이루어진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산업과 관련한 유산요소들이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즉, 피코섬에서 나타나는 돌문화경관은 15세기 이후의 제작연대를 지니며, 문화유적의 유형도 제주에 비해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섬의 규모가 제주도의 1/4 정도로 작고, 섬에서 가장 가까운 포르투갈 본토로부터의 거리도 매우 멀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섬의 발견 이래 정착해 거주해

은 인구의 수가 적었다. 서유럽의 휴양지로서 2000년 대 중반에 들어서야 관광객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수가 여전히 한정적이어서 돌문화경관에 대한 인간에 의한 간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피코섬의 포도밭과 와인 양조지역 일원의 돌문화경관은 아조레스지방정부의 「지역법령(Legislative Regional Decree) 48/2003/A」에 의거하여 '보호경관(Protected Landscape)'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코섬 포도나무 재배 및 와인 양조지역에 관한 「법령(The Act of Law) n. 17/94」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지역 경관의 자연·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 외 보호경관과 토양이용의 올바른 관리에 대한 「지역규정(Regional Regulation Decree) 10/2002/A」과 같은 여러 규정에 따라 돌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돌문화경관은 다양한 제작연대를 반영하며 경관을 이루는 개별 문화유산들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한편, 보존상태는 피코섬의 유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지 못한 편이다. 이는 제주도에서 구석기 인류의 거주가 시작된 이래 여러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성한 인류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역사를 반영한 문화유산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지속적 보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빌레못 유적으로 구석기 중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4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재원, 2001). 이후 약 1만 년 전 홀로세로 접어들면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제주도가 섬이 되었음에도 육지로부터의 최단거리가 85km로 피코섬에 비해 매우 짧고 연속되었던 지역이 대륙붕으로 변하여 육지에서 섬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가 섬이 된 이후로도 역사 속에서 이곳과 육지와 연결성이 지속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여러 연대와 유형의 문화유적들이 남아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들 유적에 대한 인위적 변경, 개발 등의 간섭 또한 지속속으로 이어져 오늘날 제주 돌문화경관의 보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돌문화경관을 이루는 문화유산들은 보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문화재보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조례」(이하 향토유산 보호조례)

가 있다. 제주돌문화 경관요소들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에 포함되어있고, 다수는 비지정문화재에 해당된다(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 외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유산들 중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돌문화유산이 향토유산 보호조례를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u.kr/>).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도는 도내외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섬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적 재산 보호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아져 문화재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제주의 일부 마을에 주민 주도로 문화유산보전회나 향토보전회가 운영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관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산 보존사업 방식도 과거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추진 방식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유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발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대상 발달의 가치와 보전 및 관리 교육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육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한라일보, 2018년 2월 13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역에 가해지고 있는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인해 전통 경관이 소실 및 훼손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제주 돌문화경관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보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돌문화경관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전통 취락경관이 세계유산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는지 검토하기 위해 제주도와 유사한 돌문화경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피코섬과 비교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 도시지리학 연구에서 지역의 촌락경관에 관하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경관 주변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경관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 취락경관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인문·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연적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향후 도시지리학의 취락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註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2년 세계유산협약에서 문화유산의 대상으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외에 '자연과 인간이 결합하여 만든 산물'로서 문화경관의 가치를 처음 인정하였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경관은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안 및 창조된 '규정된 경관(defined landscape)', 초기의 사회, 경제, 행정, 종교적 요구에서 시작되어 자연환경에 대응해 발전된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물질적인 문화적 증거보다 자연적인 요소와 종교·예술·문화적 연관성을 지닌 '연계된 문화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으로 구분된다(세계유산센터 운영지침,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2018년 현재 1,073건의 세계유산 중에서 102건이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바 있다(세계유산센터 문화경관 활동, <https://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
- 2) 제주도의 연평균기온은 해안지역에서 15.5°C~16.2°C, 산간지역에서 7.1°C~10.8°C로 나타나며, 연총강수량은 해안지역에서 1,200mm~1,900mm, 산간지역에서 4,300mm 이상 나타난다(제주지방기상청, 2011).
- 3) 피코섬의 연평균기온은 해안지역에서 약 20°C, 산간지역에서 약 10°C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며, 연총강수량은 해안지역에서 1,000mm 이하, 산간지역에서 5,000mm 이상으로 나타난다(Parque Natural do Pico, 2017).
- 4) 아브리고를 비롯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한 포르투갈어 발음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포르투갈어 자모 표기법(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을 따랐다.

文 獻

- 강만익, 2009,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 연구," 탐라문화, 35, 205-246.
- _____, 2013, "한라산지 목축경관의 실태와 활용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3), 93-112.
- 강성기, 2010,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비교 지역 관점을 위한 문화경관 이해의 유용성-제주 돌담경관과 유럽 보카주 경관의 사례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문화경관으로서 제주 발담의 의미 탐색,"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3), 223-233.
- 강성기·정광중, 2016,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발담의 존재형태와 농가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4), 809-825.
- 강연실, 2008,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방안 -돌문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고보균·윤성효, 2016, "제주도 단성화산의 분화량 계산과 화산재해 평가에 대한 예비연구," 암석학회지, 25(2), 143-149.
- 고성보, 2007,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발담의 경관가치 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3(3), 123-133.
- 고재원, 2001, "제주도 구석기문화의 검토," 제주도사연구, 10, 7-20.
- 국토지리정보원, 2013,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권동희, 2006, 한국의 지형, 한울아카데미.
- 권혁재, 1999, 지형학, 법문사.
- 김일우, 2005, "고려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 79-109.
- 김종석, 1998, 제주 전통사회의 돌(石)문화,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이민부·공우석·김태호, 2008, 한국의 자연지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창환, 2013,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의 지리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2), 175-187.
- 김태호, 2003, "제주도 해안지대의 지형분류," 한국지형학회지, 10(1), 33-47.
- 유순호·송관철, 1991, "제주도의 육상 및 해양자원: 제주도의 토양과 농업자원 - 제주도 토양의 분류와 특성 및 관리 문제," 제주도연구, 8, 41-58.
- 윤선·정차연·현원학·송시태, 2014, "제주도 구조운동사," 지질학회지, 50, 457-474.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6,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연구 용역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이혜은, 2013, "모더니즘의 대표적 도시, 세계유산 브라질리아의 명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1-11.
- 정광중·강성기, 2013, "장소자산으로서 제주 돌담의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99-117.
- 정광중·김은석, 2008, "북촌리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따른 돌문화 관련자원의 형성과 배경,"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8(1), 7-26.
- 정승훈, 2014, "제주발담 농업 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도," 관광연구저널, 11, 5-23.

- 정주연·이해은, 2014, “마카오의 도시경관과 세계유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49-58.
- 제주지방기상청, 2011, 지역기후변화보고서(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
- 조은일, 2015, “제주도 하천에 적용 가능한 지역환경기준 설정,” 한국환경과학회지, 24(1), 97-115.
- 진명식·최현일·신흥자, 2004, 한국의 지질노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최재현·이해은, 2013, “세계유산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산성도시 남한산성의 경관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1-17.
- 최용복·정문섭, 2006, “GIS를 활용한 농촌경관 분석 사례연구-제주도 돌담경관을 중심으로,” 한국 GIS학회지, 14(3), 349-361.
- 한국지구과학회, 2009, 지구과학사전, 북스힐.
- 한국지리정보보안연구회, 2004, 자연지리학사전, 한울아카데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도 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태홍, 1998, “제주도 연안 해빈과 사구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5, 73-87.
- Brenna, M., Cronin, S. J., Kereszturi, G., and Wijbrans, J., 2015, Intraplate volcanism influenced by distal subduction tectonics at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Bulletin of Volcanology*, 77(1), 1-16.
- Cappello, A., Zanon, V., Negro, C. D. Ferreira, T. J. L., and Queiroz, M. G. P. S., 2015, Exploring lava-flow hazards at Pico Island, Azores Archipelago (Portugal), *Terra Nova*, 27, 156-161.
- Connor, S. E., Leeuwen, J. F. N., Rittenour, T. M., Knaap, W. O., Ammann, B., and Bjorck, S., 2012, The ecological impact of oceanic island colonization: A palaeoecological perspective from the Azores, *Journal of Biogeography*, 39, 1007-1023.
- Cruz, J. V., 1997, *Estudo Hidrogeológico Da Ilha Do Pico (Açores – Portugal)*, Ph.D. Dissertation, Universidade dos Açores, Ponta Delgada.
- Cruz, J. V., and Andrade, C., 2017, Groundwater salinization in Graciosa and Pico islands (Azores archipelago, Portugal): Processes and impacts, *Journal of Hydrology: Regional Studies*, 12, 69-87.
- Cruz, J. V., and Silva, M. O., 2000, Groundwater salinization in Pico Island (Azores, Portugal): Origin and mechanisms, *Environmental Geology*, 39(10), 1181-1189.
- Freitas, M. C., and Pacheco, A. M. G., 2010, Soils of Azores islands: elemental characterization with an emphasis on rare-earth elements,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283(1), 117-122.
- Gaudru, H., 2010, Case Study 13. The Azores - volcanic islands in the Atlantic, in Erfurt-Cooper, P. and Cooper, M. (ed.), 2010, *Volcano and Geothermal Tourism*, Routledge, London, 3.
- Interpretativa da Paisagem da Cultura da Vinha do Pico, 2017, Panel Materials: Tidal Wells, Vineyard Landscape, Viticulture, Shelters, Cultivation of the Fig Tree, Island Formation, Pico Volcanism, Climate.
- Madeira, M., Pinheiro, J., Madruga, J., and Monteiro, F. M. G., 2007, Soils of volcanic systems in Portugal, in Arnalds, O., Bartoli, F., Buurman, P., Oskarsson, H., Stoops, G., and Garcia-Rodeja, E. (ed.), 2007, *Soils of Volcanic Regions in Europe*, Springer, Berlin, 69-81.
- Museu do Pico Pólo do Museu do Vinho, 2017, Panel Materials: Currais, Climate, Soils.
- Nunes, J., Camacho, A., Franca, Z., Montesinos, F., Alves, M., Vieira, R., Velez, E., and Ortiz, E., 2006, Gravity anomalies and crustal signature of volcano-tectonic structures of Pico Island (Azores),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156(1-2), 55-70.
- Parque Natural do Pico, 2017, Panel Materials: The Mount-Pico Trail, Foreword, Geology.
- Quartau, R., Madeira, J., Mitchell, N. C., Tempera, F., Silva, P. F., and Brandao, F., 2015, The insular shelves of the Faial-Pico Ridge (Azores archipelago): A morphological record of its evolution, *Geochimistry Geophysics Geosystems*, 16(5), 1401-1420.
- Sayers, D., 2010, *Azores*, Bradt Travel Guides, Buckinghamshire.
- Técnico, G., 2014, *Paisagen da Cultura da Vinha da Ilha do Pico: Landscape of Pico Island Vineyard Culture*, Secretaria Regional dos Recursos Naturais, Direcção Regional do Ambiente, AZ.
- 한라일보, 2018년 2월 13일, “제주발담 6차 산업화 어디까지 왔나(하) 제주 발담 세계화 지역 주민들

손으로,”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1851960058_6421020&spage=1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세계유산센터 문화경관 활동, <http://whc.unesco.org/en/culturallandscape>
세계유산센터 운영지침, <http://whc.unesco.org/en/guideline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www.council.jeju.kr>
피코 세계유산등재신청서, 2004, <https://whc.unesco.org/uploads/nominations/1117rev.pdf>
Google Earth, <http://earth.google.com>
ICOMOS, 2004, Advisory Body Evaluation of Pico Island

(Portugal), No. 1117 Rev. <https://whc.unesco.org/en/list/1117/documents>

교신: 성효현,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메일: hhsung@ewha.ac.kr)

Correspondence: Hyo Hyun Sung,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
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e-mail: hhsung@ewha.ac.kr)

투 고 일: 2018년 3월 27일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8일

투고확정일: 2018년 4월 13일

